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2월 13일 (제113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예수께 붙들린 자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사기꾼에게 붙들리면 사기꾼이 되고, 노름꾼에게 붙들리면 노름꾼이 되고, 학자에게 붙들리면 학자가 되고, 원어민에게 배우면 외국어가 부쩍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께 붙들리면 어찌 될까? 성경에는 예수께 붙들려서 인물이 된 자들이 많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비겁한 자가 대범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예수께 붙들려서 스승의 반열에 오른 자들이 다수다. 모세, 베드로, 바울 등등이 그렇다. 하나님은 잘나고, 많이 배우고, 왕성한 체력을 지닌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되레 죄 많고, 약하고, 병들고, 못배운 자들을 택하셨다. 왜냐?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 발전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네가 잘 나서가 아니라 내게 붙들려서 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7-29). 예수께 붙들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3:12). 나 역시 그리 내세울 것이 없던 농사꾼의 자녀였다. 그런 내가 세계를 150바퀴 이상 돌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다. 내가 잘 나서가 아니다. 예수께 온전히 붙들렸기 때문이다. 감나무에 접붙여지면 감이 열리는 법, 예수께 붙들리면 예수와 같은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2022년, 신학교를 다시 연다. 신학교는 잘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다. 오직 예수께 붙들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장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가 자원하여 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중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나는 제2의 이초석 목사가 배출되기를 늘 기도한다. 그것은 흰옷을 입는다고, 나를 흥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히 예수께 붙들릴 때 가능하다. 예수께 온전히 붙들린 자가 되라.

충성(忠誠)된 자가 되라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은 '충성(忠誠)'을 강조하셨다. "너희는 충성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세우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생각하라,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충성되어 복과 능력을 받았습시다.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 곧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성(忠誠)이란 한자를 보세요. 충성 충(忠)은 가운데 중(中)과 마음 심(心)으로, 정성 성(誠)은 말씀 언(言)과 이룰 성(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 곧 명령만 하면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는 것이 충성입니다.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성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이 충성된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성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성된 자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셔서 성령으로 거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보증하십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고전4:2).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예배가 있는 날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책임자들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고 꼭 문자를 보내며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조장, 구역장, 성가대장 등으로 각자 직분을 주셨건만, 맡겨진 일보다 세상 일이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忠誠)뿐이다

봉우 이초석 목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우리에게 오직 '예'뿐입니다. '아니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후1:18-19). 나를 비롯하여 서울교회 담임인 이시대 목사와 모든 지교회 목사, 전도사들에게 오직 '예', '예쎄(Yes sir)!'뿐이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을 접고 주군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범을 보이셔서 자신의 뜻을 접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순종

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를 기필코 이루고자 결심하니 믿지 않는 아담 사스다왕과 왕비를 들어 전폭적으로 돕지 않습니까? 성의 재건을 위한 물자와 수송을 위한 군대까지, 또한 인력 이동을 위한 비자까지 지원해줍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들어 도와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충성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셔서 도와주십니다'(마6:33).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먼저 하나님입니까?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충성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쎄'하며

먼저인 사람들은 그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모세를 생각하세요. 여호수아, 갈렙, 느헤미야, 사도 바울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세요. 나 예수의 종 이초석은 38년 목회하면서 먼저 하나님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부디 나를 닮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세상 끝 날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예수중심신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기한 : 2022년 2월 21일 면접일시 :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면접 장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17 현대안성타워 4층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5:24~30)



부지런한 자의 전답에는 잡초가 없다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중의 대다수가 연초에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뭐 이제 2월인데, 재촉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눈 깜짝하면 한 해가 갑니다. 괜히 “세월을 아끼라”(엡5:16)고 성경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웠으면 기한도 아울러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지런을 떨게 됩니다.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부지런의 표본으로 개미를 들었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6:6~8)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물인 개미도 ‘먹이를 모은다’는 목표를 세웠음은 물론이고,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기한을 정했기에 근면과 성실로 가을까지 부지런히 일한 것입니다. 기한이 없다면요? 베짖이 신세가 됩니다. 베짖이도 먹이를 구해야 한다는 목표는 있었으나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에 ‘내일, 내일’ 하다가 겨울이 닥쳐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게으름은 마귀가 주는데, 그놈은 여러분에게 “부지런할 필요 없어. 게을러도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세월이 좀 먹냐? 오늘날 날이냐? 내일 해.”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인생이 어찌 될까요?

여러분,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실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잡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孝道)하라

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먼저 육체적 게으름을 떨어내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늦잠 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은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자들입니다’(잠19:24). 꼼짝하기 싫은 거지요. 그런 자에게 성경은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

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6:9~11)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고로 엉덩이가 가벼워야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가난한 집에 가보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누워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논도 없고, 밭도 없어 할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그렇게 게으르니까 일이 없는 것이고, 일이 없으니 돈이 없어 논을 못 산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의 공통점은 핑계를 잘 댄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들을 간파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잠26:13~15).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자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돈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즉시 나가 부지런히 장사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 뒀습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핑계를 댑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니까”(마25:24~25). 자기의 게으름을 탓한 게 아니라 되레 주인을 탓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마25:26~30)

고 했습니다. 그럼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은 먼저 자기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느니 이 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잠21:25). 자기만 궁핍하면 다행인데 게으름은 남도 죽이기에 악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잠10:26).

제 차를 운전해 주는 김충직 집사의 딸이 몰라보게 예뻐졌습니다. 무려 30kg이나 살을 뺐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운동을 했 다네요. 제가 ‘이런 애를 며느리 삼으면 뭘 해도 한다.’고 장로들에게 말했 습니다. 말이 쉽지, 30kg 를 빼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운 동을 했 겠 습 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부지런히 공부하는 자가 좋은 대학에 가고, 운동하는 자가 건강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둘째, 흔적 게으름을 떨어내야 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호미로 일하는 것보다 포클레인으로 일하면 결과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쌀로만 판매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과자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어 판로를 넓히는 자가 있습니다. 평생 1모작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2모작, 3모작을 하여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화투판이나 벌이는 농부가 있는가 하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겨울에도 소출이 있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잘 돌아갑니다. 조선 시대의 한 왕이 세자가 장가들 나이가 되자 직접 세자빈을 간택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전국에 방(榜)을 붙였습니다. 그랬

니 재력 좀 있고, 지식 좀 있다는 집안 여식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쌀 한 말을 줄 테니 1년 동안 다른 것은 먹지 말고 이것으로만 연명하고 오너라. 절대 이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모두에게 쌀 한 말을 나눠주었습니다. 세자빈 후보들은 쌀 한 말씩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에 쌀 한 말이라... 아무리 가녀린 처자들이라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1년 후 궁궐에 다시 모인 처자들의 물گون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나타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사후의 영(靈)이 귀신이다

자들도 있고, 심지어 들 것에 실려 온 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처자만 얼굴이 발그레하니 건강할뿐더러 쌀도 잔뜩 싣고 나타났습니다. 왕이 그 처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그 처자 왈, “상감마마, 쌀 한 말로 1년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쌀로 떡을 만들어 팔고, 다시 그것으로 쌀을 사 떡을 팔았더니 나중엔 쌀 한 달구지 값이 남더군요.” 왕은 “네가 정녕 이 나라의 지어미로 합당하다.”며 그 처자를 세자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면 생각의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영적인 게으름을 떨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밤 늦게, 밤이 새도록 기도해 부지런하셨고, 우리에게도 영적 부지런을 떨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의 종들에게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행6:4)고 하였고,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고 당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계3:16)는 경고도 잊지 않으셨습니까. 왜냐? 게으름을 악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상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잠24:30~32)고 전도자는 자기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밭에, 인생의 포도원에 잡초와 가시덤불이 덮여있지는 않은가 살펴봅시다. 부지런이란 열쇠로 열지 못할 문은 없습니다. 그러니 영·혼·육에 부지런을 떨어봅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4:15)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 어봅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오직 ‘예’, 순종뿐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작년, 목회 복귀를 바라며 몸을 돌보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꿈에 어느 대갓집에 초대되어 갔다. 함께 갔던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군가 ‘일어나 일해야지?’ 하고 부르신다. 그 목소리에 홀로 깨어 일어나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목소리 주인공이 글쎄 소천하신 총회장님의 어머님 아니신가! 시간을 보니 새벽 5시였다. ‘아, 이제 복귀해야 할 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하고 더욱 기도에 매진했다.

그런데 다음번 꿈에는 이제 총회장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였다. 목사님을 뒤따르며 ‘목사님, 이제 저 복귀하려합니다. 허락해주세요.’ 하는데 정작 목사님은 들은 채 만 채. 그냥 땡하니 자리를 뜨신다. 먼저 꾸었던 꿈과는 너무나 배치(背馳)되는 것이었다. 생각이 깊어졌다. 때마침 다음날 총회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다. 그런데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 “넌 왜 대답을 안 해!” 목사님의 꿈에 내게 무언가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대답을 안 하고 머뭇거렸나? 하지만 내가 목사님의 꿈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떤 질문을 하셨을지 어떻게 알리오. 현실에서도 말을 못하고 머뭇머뭇... 그러다 내가 꾸 꿈들을 말씀드렸더니 ‘그래? 기도해보자.’ 하며 전화를 끊으셨다.

그런데 이후로 본래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계속 심상치 않은 꿈들을 연속해서 꾸게 되었다. 그리고 꿈들을 꿀수록 마음의 부담감 또한 점점 더해졌다.

하루는 꿈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

시대 목사님께서 불러 세우시더니 ‘이젠 지방 안 내려가도 돼, 서울에서 일하게 됐어!’ 하시는 거다. 다음엔 88체육관에서 안내를 서는 꿈을, 그다음엔 교육부와 젊은 세대들로 인해 고심하시는 총회장님께 ‘저라도 필요하시면 보내주세요.’ 자원하는 꿈을... 그러다 결정적인 한 꿈을 꾸게 되었다. 성탄절을 마치고 내가 서울 청년부에 발령받아 목회에 복귀하는 꿈을 말이다!

기도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기도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오직 ‘예’ 하고 순종할 따름 아니겠는가! 내게 보여주시는 모든 꿈과 이상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에 전무했다. 21일 작정기도를 하는 가운데 7일 금식기도도 했다. 기도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 총회장님께도 꿈들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러다 지난 1월 9일, 전격적으로 인사이드가 발표되어 서울 청년부 담당목사로 복귀하게 되었다. 꿈에서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뒤따르는 것이다(히11:6). 총회장님께서 매번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오직 ‘예’, 순종뿐이다.

신현명 목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충격과 도전

“진실아, 내가 너에게 꿈을 심어줄게. 유학에 도전해봐. 훗날 세계가 꽃다발을 들고 너를 환영해줄 거야.”

당시 고3을 눈앞에 둔 저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내가 외국에서 공부?’ 이시조차 경험하지 않은 저에게 유학이라는 두 글자가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다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네 친구와 함께 지붕을 뚫는 도전을 하여 중풍병이 낫는 기적을 맛봤단다. 두려워말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해봐.”

충격으로 다가왔던 목사님의 말씀이 촉매제가 되어 저는 공부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유학을 준비하던 중 이듬해 6월, 아버지가 소천하시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제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학원에 학비를 내야 하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를 데려가셨으니 저를 책임져주세요!” 부르짖던 제게 할머니를 찾아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매물찬 거절뿐, 저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발 할머니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저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음날 할머니의 승낙을 받는 역전의 기쁨

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한 시드니에서의 유학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니다.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리라.’는 성령님의 음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였더니 막막했던 앞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감사했던 일은 처음 묵었던 하숙집에서 인종차별로 서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친구를 통해 인심 좋은 호주 노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1년 여간 그 집에 머물면서 현지생활에 적응하게 되었고, 그들과의 소통은 영어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을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학위를 받을 때는 유창한 영어실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대우가 남다름을 느낄 때마다 미래를 예견하신 목사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전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였고, 나의 멋진 추억담이 되었습니다. 도전과 모험이 없이 성장과 발전은 없습니다!

김진실 사모

어느 날, 쥐가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신에게 제발 고양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쥐가 고양이가 되었다. 하지만 고양이가 되고 나니 개가 무서웠다. 그래서 기도하자 신은 다시 호랑이가 되게 해주었다. 하지만 호랑이가 된 후에도 여전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했다.

왜 그럴까. 외적 모습은 변했지만 내면, 곧 생각은 여전히 쥐였기 때문이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최근 바쁜 일정으로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에 부쳤다. 잠깐 자고 일어나자니 ‘아! 정말 일하러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씻으려다가 거울에 비친 사람을 보았다. 그는 피곤함과 짜증난 모습이었다. 문득

총회장 목사님께서 거울 속의 사람과 대화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사람에게 “정신 차려, 피곤해? 하기 싫어? 일이 많음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야?”라고 말하자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난 안 피곤하다.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거울 속 사람의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냥 하루를 시작했다면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피곤하다’, ‘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환경에 끌려갔겠지만, 생각을 바꾸니 가뿐히 하루 일정을 다 마칠 수 있었다.

내가 힘든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시대 탓도 아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탓이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는 말씀을 늘 심비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이은성



:: 생명의 말씀 ::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

총회장 목사님의 18번 교육 중에 강단에 5명 정도를 세워놓고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일렬종대로 앞으로, 혹은 뒤로 돌아가게 하시며 앞사람부터 등수를 매기시다가, 좌향좌 혹은 우향우를 통해 5명 모두 성도를 향하여 일렬횡대로 걷게 하신 후 이제는 모두가 1등이 되었다고 하신다. 생각을 바꾸면 모두가 1등이며 가능성을 가진 자라 하신다.

세상은 우리를 상대평가하기를 좋아하여 어느 분야든 1등은 1명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라 모든 인간이 똑같이 1등이 될 수 있다 하신다. 하나님의 평가인 만물의 ‘선함’(딤후4:4)은 모든 존재에게 적용된다. 그 영광의 가능성을 파괴하지만 앓는다면, 조건과 제약을 뛰어넘어 꿈꾸고 도전하고 선한 창조를 이끌 어낼 능력과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얼마 전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온 가족이 서울로 향했다. 아이 셋이 큰할아버지인 목사님께 교육을 받으며 꿈과 도전정신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4년 후 대학입시를 앞둔 큰아들 찬영이에게 관심을 물으시더니, 최고를 향해

도전할 것을 명하셨다. 지방에 살고,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혜택에 뒤졌다 탓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서든 충분히 가능하니 도전하라고 목표를 주셨다. 지금 당장 가서 서울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전하라 하신다. 그 시로 아이들과 함께 달려가 서울대 캠퍼스를 모두 둘러보고 사진 찍어 바로 전송해 드렸다. 캠퍼스를 둘러보는 내내 자녀들 모두가 격동된 모습으로 도전을 받고 마음이 흥분된 듯했다. 시각적 교육을 시킨 할아버지 교육에 감동을 받았는지,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아들이 “오늘 큰할아버지 교육이 꽤 괜찮았어요!” 하며 흐트해한다. 두 동생들이 형(오빠)처럼 되고 싶다 한다. 꿈과 가능성이 금세 전염된 것이다.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어주신 결과다. 목포에 돌아와서도 책상 앞에 사진을 코팅하여 붙여놓고 시각화하고 있다.

가능성이라는 선한 능력을 일깨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생각의 가난으로 꿈마저 못 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 ‘능력’이라는 친구와 동반할 때 주님은 반드시 도우시리라!

송직화 목사

생뻘쥐베리의 ‘미소’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앙투완 생뻘쥐베리(Antoine de Saint-Exupéry)의 ‘미소(Le Sourire)’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투 중에 적에게 포로가 되어 감방에 갇혔다. 간수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거친 태도로 보아 다음날 처형될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극도로 신경이 곤두섰으며 고통을 참기 어려웠다. 나는 담배를 찾아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한 개비를 발견했다. 손이 떨려서 그것을 겨우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성냥이 없었다. 그들에게 모두 빼앗겨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으나 나에게 결눈질도 주지 않았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나는 그를 불렀다. 그리고는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간수는 나를 쳐다보고 어깨를 으쓱하고는 가까이 다가와 담뱃불을 붙여 주려하였다. 성냥을 켜는 사이 나와 그의 시선이 마주쳤

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무심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미소를 짓는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가슴속에 불꽃이 점화되었다! 나의 미소가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를 머금게 했던 것이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준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나 또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단지 간수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임을 깨달았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도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소?,”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대답하면서 얼른 지갑을 꺼내 나의 가족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 역시 자기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얘기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으며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과 내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렵

다고 말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일어나 감옥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나를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는 말없이 함께 감옥을 빠져나와 뒷길로 해서 마을 밖까지 나를 안내해주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뒤돌아서서 마을로 급히 가버렸다.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다.

웃음은 최고의 스펙이며, 최고의 무기, 명약입니다. 옛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웃음에 인색한 삭막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니까? 복이 와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지고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크게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잠15:13).

예수중심편집실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섬기는 자의 기쁨

고등학생 시절, 한 살 어린 그를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불량학생 중에도 우두머리였던 그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담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에게 희망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애타는 부탁 때문에 그는 가끔 교회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교회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던 날, 그는 이미 친구들과 바다로 떠날 계획을 세워놓았으나 태풍이 몰려와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 삼아 교회 수련회를 왔는데, 하나님은 그날을 걱정하고 계셨나 봅니다. 폭탄 투하되듯, 강력한 성령이 임하고 그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담뱃진이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체험을 하고 단번에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행동,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에게 교회의 기대와 관심이 쏠렸고, 학교에도 그의 간증이 알려져 유명해졌습니다. 얼마 후, 그가 교회 고등부 임원으로 선출되자, 시기하는 몇몇 포래들이 과거를 문제 삼아 그를 슬쩍 배척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불량학생의 무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선배들의 심한 괴롭힘과 조

롱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마주한 그는 무척이나 힘겨워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힘든 마음을 깊이 나눌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가 되어 그를 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섬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그는 대학교에 갈 결심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군대에서 당직 근무 중, 지휘통제실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충성! 김 소위입니다. 형,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그는 바라던 대로 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권유한 대로 장교로 임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꿈과 희망 없던 과거를 생각하면 그에게도, 저에게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성도가 하늘로부터 온 영광을 마주하는 그 순간은 아버지가 고생한 자녀의 손을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베푼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왔던 저는 자연스

레 잔치에 참여한 하객이 되는 것이지요. 잔치를 베푼 아버지와 주인공이 된 자녀의 큰 기쁨을 한마음으로 누리며,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롬 9:21).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을 택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설령 모두가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어가십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려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겨주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별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까만 밤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여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한 조각이라도 쓰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명관

마지노선은 없다

‘마지노선’은 ‘최후의 보루’라는 뜻으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을 뜻한다. 이는 프랑스 국방장관 앙드레 마지노가 세웠기에 ‘마지노선(Maginot Line)’이라고 유래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27년 프랑스 마지노 장군은 자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진지 구축을 위해 길이 750km의 요새를 짓는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겪은 후라 방어야말로 절대적인 승리의 요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화해 기준으로 160억 프랑,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의 거대 자금을 들여 북서부 벨기에 국경에서 남동부 스위스의 국경까지 다중 철조망, 지휘소, 탄약고, 식량창고에 각 요새들을 연결하는 지하 철조망은 물론 352개의 포대와 5,000여개의 방벽로 구성되 전쟁과 군대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있던 철옹성 마지노선. 프랑스 사람들은 “마지노선이 있는 한 독일 사람들은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독일이 마지노선을 어떻게 뚫겠어?”라고 굳건한 믿음을 보였다.

그런데 이후 독일군은 마지노선이 세워지지 않은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지역 쪽으로 프랑스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가한다. 그 결과 ‘마지노선’은 최후의 보루에서 무용지물로 전락한다. 이후 방어만으로 전쟁에 이길 수 없음을 안 이들은 다른 전략을 추진하나 마지노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의 성공을 회상하며 마지노 성 쌓기에 급급하더니 결국 많은 프랑스 군인들은 목숨을 잃고 만다. ‘혁신’의 반대말이 되어버린 ‘마지노선’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한 프랑스 과오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늘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프랑스 국민들이 ‘마지노선’을 긋고 현실에서 안주한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신앙에서 기존의 방식, 과거의 습관에 안주한 적은 없나 뒤돌아보자. 우리 예수중심 성도들에게 ‘마지노선’은 없다.

송현혜

